

# 건설기계 부정 등록·뇌물...허점 투성

규정을 어겨 영업용 건설기계를 등록해주거나 이를 대가로 뇌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광주지역 구청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이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건설기계 행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월 31일 광주경찰청과 일선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초께 광주 모 자치구 교통과 공무원 A씨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영업용으로 등록해주고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등록해준 장비는 관련법에 따른 수급 조절대상 기종(총 3개·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컴프)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공급 과잉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2년씩 4차례) 대여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영업용 콘크리트 컴프는 2015년 8월부터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 중이다.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다.

뇌물을 받았다고 자수하고 최근 시작한 A씨가 건설기계 관리 정보 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수사·행정기관은 추정하고 있다.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은 특정 조건(직권발소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대로 저장·등록이 가능했다.

신규 등록 예외적 허용 근거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작성한 대로 등록해 영업용 건설기계 번호판을 발급해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자리를 비운 담당자 대신 업무를 할 때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퇴직한 광주의 다른 자치구 교통과 공무원 B씨도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추정) 규정을 어기고 건설기계 번호판을 발급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해 8월 '예외적 허용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시스템에 등록되는 체계가 마련됐고 관련 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용 건설기계를 자가용으로 변경한 경우 교체 신규 등록(다른 기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건설기계 수급 조절 시행 9년 만에 시스템 정비가 이뤄지면서

## 건설기계 관리 정보 시스템 뒤늦은 보완

### 개편 전 담당자 입력한대로 번호판 발급

#### “행정 전문성 강화, 세심 관리·감독 필요”

능장 대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사진에 보완됐다면 이 같은 비리·부정 또는 업무 착오를 막을 수 있었던 설명이다.

광주 자치구 공무원들은 “뒤늦은 개선이라고 본다. 각 자치구별로 건

설기계 등록 업무와 대여·매매업 허가 업무를 하는 방식이 다른 상황(부서 통합 또는 분할)인데다 담당자 교체도 잦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자들이 건설기계나 번호판을 거래하며 이익을 남기면

서 각종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일선 5개 구청의 건설기계 관련 행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A씨가 업자에게 받은 돈의 규모·성격 등을 살피고 있으며, 부정 등록된 장비의 번호판을 매개하는 사례 등도 조사 중이다.

신봉우 기자



거침없이 질주하는 신악 바이크. 지난달 30일 오전 충북 영동군 초강천 방백장 일원에서 열린 '2019 엑스트림 엔듀로 신악 로데오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강을 건너 질주하고 있다.

## “빌린 돈 엄마가 대신 갚아주세요” 메신저 피싱 주의

“엄마 문화상품권을 급히 구입해야 해요. 저 대신 구입해서 번호판 보내주세요.”

A(62·여)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아들의 메신저 메시지를 받았다.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기본 사진'인 것을 의심해 되물었다.

아들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 통화도 안 돼 수리를 맡겼다. 공용컴퓨터에서 메신저 접속을 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해명을 받은 A씨는 아들의 부탁대로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번호를 촬영한 사진을 아들에게 보냈다.

B(62·여)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유명 메신저를 통해 아들의 메시지를 받았다.

아들은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저 대신 600만원을 송금해주시면 갚겠다.”

B씨는 아들이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서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이 걱정

이 돼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

2월 26일 낮 12시께 C(57·여)씨는 조카로부터 “친구들에게 빌린 600만원을 이체해야 한다. 실수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해 이체가 되지 않으니 고모가 대신 해달라”는 메신저 메시지를 받고 돈을 보냈다.

이처럼 메신저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은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페이스북 메시지 등 다른 사람의 온라인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다.

3월 3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 사기 일당들은 개인 메신저 계정·비밀번호를 판매하는 일당들로부터 구입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조합한 이메일 계정을 해

킹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들은 이메일과 일부 메신저 앱의 연락처 정보가 공유된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연락처에 ‘어머니’, ‘고모’, ‘이모’ 등을 상대로 도용한 이름 또는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체무상환·병원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가로채고 있으며,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녀와 조카 등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50~60대 중년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이 메신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돈이 필요한 이유 등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상대방이 전화를 피할 때에는 신분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돈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 신안 해상서 인도네시아 선원 숨진채 발견

신안의 해상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돼 목포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0시15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 인근 해상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A(3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선원이 발견했다.

A씨는 선원들에 의해 인양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해경은 A씨가 동료선원 11명과 함께 지난 24일 37급 어선에 승선해 이날 오후 4시30분께 가거도항에 입항한 것을 확인했다.

또 오후 6시께 동료선원 3명과 함께 항구 인근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A씨만 어선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해경은 “A씨가 다른 어선의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는 동료 선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순천 철길 건널목서 열차·승용차 충돌

철길 건널목에서 열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4분께 순천시 덕월동 소라마을 입구 정암대 인근 철길건널목에서 목포에서 순천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A(57·여)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사고 직전 차량에서 무사히 빠져 나갔고 열차 탈선 등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차량 안에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이 있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A씨는 경고음과 동시에 건널목을 건너던 중 철길 맞은 편 차단막이 내려 오고 열차가 다가오자 차량을 건널목에 놔둔 채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A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돌한 뒤 자체 점검 차원에서 25분 가량 정차한 다음 목적지로 다시 출발했다.

이날 사고로 A씨의 차량이 크게 파손됐고, 열차와 부딪힌 차량이 건널목 밖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신호 차단장치(시가 15만원 상당)도 파손됐다.

순천=김승호 기자

## 회사 후배에 흥기 휘두른 30대 긴급체포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회사 후배를 흥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7)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모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회사 후배 B(33)씨에게 수차례 흥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전부터 동거하는 B씨가 술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다룬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이 많이 다쳤다’고 신고한 뒤 하수구에 흥기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가석방 기간 재범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주택가 주차차량 9대 열쇠로 굵은 60대 검거

술에 취해 주택가 주차된 차량을 열쇠로 굵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주차된 차량을 굵은 혐의(재물손괴)로 A(6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21분부터 35분까지 14분동안 북구 무암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B(26)씨의 에쿠스 등 차량 9대를 가지고 있던 열쇠로 파손해 1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하던 중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파손된 차량을 변상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비틀하며 걸었던 점을 토대로 조사를 벌고 있다.

조인호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